

[보도자료]

한국오가논, 여성 생애주기 건강 의제와 정보 담은 여성건강 매거진 ‘보이스’ 2 호 발간

- ‘건강한 여성, 건강한 사회’ 주제로 여성건강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핵심 사회적 의제로 조명
- 의료·언론·유경험자 등 다양한 목소리로 여성건강 현실과 변화의 필요성, 환경 개선 방향 제시
- 청소년 성건강, 가임력 보존, 안전한 출산, 폐경, 성차의학 등 여성 생애주기 전반으로 논의 확장

서울, 2026 년 4 월 6 일 – 한국오가논(대표 김소은)은 여성 생애주기 전반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조망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건강 매거진 ‘보이스(VOICE)’ 2 호를 발간했다고 6 일 밝혔다.

보이스 매거진은 여성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형성되는 건강이 개인의 삶의 질을 넘어 가족과 사회, 나아가 사회의 지속가능성에도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여성건강 종합 매거진이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지속돼 온 건강 격차와 주요 이슈를 짚고, 의료·정책·사회적 환경 개선의 방향을 모색한다. 보이스 매거진은 한국오가논 공식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2023 년 창간 이후 두 번째로 선보이는 이번 호는 ‘건강한 여성, 건강한 삶의 여정(Healthy Women & Healthy Aging)’을 주제로 하며, 청소년기 성건강과 성교육을 시작으로 가임력 보존, 모체태아의학과 분만 인프라, 폐경 여성의 삶과 사회·경제적 역할, 성별에 따른 건강 차이까지 폭넓게 다뤘다. 이를 통해 여성건강을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의제로 확장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논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번 호에는 여성건강 분야의 의료 전문가, 언론인, 관련 경험자 등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미래를 위한 제언을 공유했다. 먼저 김슬기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의료진이자 부모의 시선에서 바라본 성교육의 중요성을 전했다. 이어 김지향 차 여성의학연구소 분당 난임센터 소장과 난자 동결을 직접 경험한 박효원 씨는 난임 예방과 미래 설계를 위한 선택지로서 가임력 보존의 의미를 이야기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저출생 상황 속에서 출산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주목받는 가운데, 박중신 대한모체태아의학회 회장은 산모와 태아의 두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 현실을 짚고, 지속가능한 산과 의료 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일보 탐사보도팀 이성원·박준석·송주용 기자는 우리나라 산모 사망의 현실을 집중 취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한 출산이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만 인프라라는 구조적 기반 위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밝혔다.

아울러 초고령화로 폐경 여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유미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의료인으로서 직접 경험한 폐경을 바탕으로 삶의 균형에 대한 통찰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나영 대한성차의과학회 회장과 박성미 고대안암병원 로제타홀 여성심장센터장은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고려한 의료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성별 차이에 대한 이해가 예방과 치료의 중요한 출발점임을 전했다.

이와 함께 중·장년 여성의 건강과 노동시장 참여가 인구 변화 대응의 핵심 의제로 논의된 정책포럼 현장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주목한 여성건강 의제를 소개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 협력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여성 생애주기별 주요 지표와 건강 정보, 관련 제도 및 지원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코너도 함께 구성했다.

한국오가는 김소은 대표는 “여성건강은 특정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반에 걸쳐 축적되는 경험이며, 이를 어떻게 존중하고 지원하느냐에 따라 개인뿐 아니라 사회의 미래도 달라진다”며 “초저출생과 초고령화 상황에서 여성건강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기반이자,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보이스 매거진이 여성건강을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확장해 생애주기 관점에서 조명하고, 개인을 넘어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의제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사진] 한국오가는 여성건강 매거진 보이스(VOICE) 2호와 함께한 사람들